

法律(消費者)聯盟

WWW. GOODLAW.ORG

金大仁(법정치포럼 이사장) 魯香基(전 한국기자협회장) 申平(로스쿨교수, 前법관) 嚴虎聲(변호사, 前국회의원) 李子賢(정계협 상임대표) 趙柄倫(교수 前헌법학회장) 趙泰任(한국부인회 총회장)

(우) 08786 서울시 관악구 썩고개로 87, 6층 전화. 02) 523-8760~7 E-MAIL: GOODLAW@GOODLAW.ORG

== 법률연맹 총본부, 제20대 국회4년 동안 국회의원 396명(중복포함)의 대정부질문 분석 발표 ==

대정부질문(국회법 122조의2)은 정부의 부패와 독재를 예방/척결하는 책무

대안 = 대정부질문도 담당부서 마련, 결과보고서 작성 및 피드백 평가 시스템 구축 필요

대정부(견제)질문 우수의원 : <국정감사NGO모니터단 평가기준의거 = 다선, 가나다순>

노웅래(민) 윤상현(한) 김삼화(바) 김종석(한) 박성중(한) 성일종(한) 제윤경(민) 추경호(한)

권력기관간 상호견제(Check & Balance)없다면 권력의 부패/독재는 필연적

- ◆ 대정부질문(기능) 축소(집회수와 본회의 일수, 질문의원수도 모두 제16대 국회이후 최저)
- ◆ 국회의원들은 출석도장만 찍고(출석률 92.02%) 산회시 26.52%만 재석 -- 국정에 소극적
- ◆ 질문의원은 민생문제나 당일 의제와는 거리가 먼 특정 정쟁이슈에 집중 -- 국회법114의2 위반
 -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대통령 탄핵, 특검, 황 대통령 권한대행 거취
 - 사드배치 반대시위, 김이수 현재소장 부결, 북한 핵실험 // -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사건
 - 북한선박 삼척항 입항,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임명, 자택 압수수색중 법무장관이 전화문제 등
- ◆ 대정부 질문 -- 본회의 총 173시간 33분 <질문의원의 대다수(75.42%)가 초·재선>
- ◆ 1차년도 이우현 의원 질문 할당시간은 14분인데도 1시간 37분 대정부질문
 - 심야 짧은 질의에 긴 답변(김재수장관 해임 - 필리버스터)으로 자정까지 이어지기도

1. 제20대 국회 4년동안의 대정부질문 : 정책질의보다 여/야간 공방전으로 전락

입법/사법감시 법률전문 NGO/NPO인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총재 김대인)는 국회 대정부 통제기능의 중요한 권한인 제20대 국회(2016.5.30.~2019.12.31.) 대정부 질문 현황을 발표했다. 제20대 국회는 총 10회 집회(정기회 4회, 임시회 6회)에서 대정부 질문을 총 32일간<본회의에서> 실시하였고, 대정부질문을 한 의원은 396명(중복하여 질문을 한 의원 포함)이었다.

대정부질문은 삼권분립원리에 근거한 국회의 국정통제수단으로서 국회의 엄중한 권한이며,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국회에 출석하여 국정처리상황을 보고하고 답변하도록 하는 권리이면서, 이는 헌법(헌법 제62조 1)과 국회법(제122조의2)에 의거한다. 우리나라의 대정부질문제도는 제헌헌법과 제정 국회법부터 시행된 헌정과 함께 해 온 중요한 민주정치제도이다.

2. 제20대 국회 4년 동안의 대정부질문 현황을 살펴보면

(1) 제20대 국회는 집회횟수, 본회의일수, 질문의원수에서 제16대 국회 이후

1) 헌법 제62조 ①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국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② 국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답변하여야 하며,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출석요구를 받은 때에는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가장 적은 대정부질문 횟수를 기록하였다.--이는 **국회의 대정부 견제기능이 크게 약화된 현상**<불성실, 직무유기?>으로 보이는바, 김대중, 노무현 정부였던 제16대 국회에는 총 545명의 의원이 대정부질문을 하였고, 이후 계속 증가하다가 이명박 정부였던 제18대 국회에서는 총 704명의 의원이 대정부질문에 참여하였다. 제19대 국회에서 600명으로 줄어들었다. 제20대 국회에서는 지난 20년 동안 대정부질문보다 가장 축소된 396명으로, 설령 다음달 2월 임시국회에서 대정부질문을 실시하더라도 최저 수준의 대정부질문이 될 것으로 보인다. <2차년도에는 김기식 금감원장 임명논란으로 국회개의회가 불발해 적어진 것 등이 원인이 됨>

(2) **대정부 질문 중 많이 쟁점이 된 것을 살펴 보면, 제1차 년도에는**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대통령 탄핵, 특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거취 문제였고, 제2차년도에는 사드배치 반대시위의 문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부결 문제, 북한 핵실험 대책 등이 이슈였고, 제3차년도에는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사건이 크게 이슈화 되었고, 제4차년도에는 조국 법무부장관의 임명논란 및 조국 장관집 압수수색과정에서의 법무장관의 전화통화 등이 크게 문제되었다.

(3) 초·재선 의원이 75.42%로 질문의원의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초·재선의원은 당선횟수별 제20대 국회 원구성 비율보다 높았다.

(4) **대정부 질문 도중 장내소란과 끼워들기는 일상행사처럼 이루어져서 실제로 국회 3차년도를 분석해 본 결과 대정부질문 중 끼워들기 방해 횟수는 총 23회**였고, 대표적으로 2018. 10. 4.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 중 주광덕 의원이 질문할 때와 이철규 의원이 질문을 할 때, 당시 홍OO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나서서 발언을 하였고, 이날 장내소란 등 회의진행이 원활하지 못하였다.

(5) 대정부질문 본회의 출석률은 92.02%였으나, 대정부질문 산회시 재석률은 26.52%에 불과했고, 제4차년도 대정부질문 산회시 재석률은 21.97%에 불과했다.

(6) **대정부질문 우수의원 :** 국회의원 전원, 국무총리/국무위원 참석하에 1문1답식 20분간의 대정부질문은 상임위별 국정감사 이상으로 부정부패를 예방적결하는 정부견제 책무/권한인바 우수의원을 국감평가기준에 의거 선정하였다.<4쪽 참고>

(7) **제도개선 정책대안 :** 제21대 국회부터는 대정부질문에 대해서도 ①전담부서를 만들어서 질문과 답변내용을 정리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②정부의 답변에 대해서는 시정조치여부를 확인 할 수 있도록 대정부질문 보고서를 만들어야 한다. ③ 책임지겠다고 답변을 하였으면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④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도 사실에 입각한 질문이었는지, 면책권을 악용하여 비방/망신주기 질문이었는지 분석/평가할 필요가 있다.

3. 대정부질문의 충실화와 언론과 NGO의 상시적인 국회의정모니터링이 필요

이번 조사를 총괄한 김대인 법률소비자연맹 총재는 “국회의 대정부질문은 국회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국정전반이나 특정현안을 파악·견제할 수 있는 국회의정활동의 중차대한 권한행사와 책무이행을 하는 과정”이라고 강조한 후, “충실한 대정부질문(견제)을 위해서는 국정감사모니터링 이상의 언론과 NGO(시민단체)들의 감시와 평가로 국회의원 선거 등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하 21쪽까지의 목차>

4. 제20대 국회 4년동안의 대정부질문 주요 현황 분석 ----- 3~21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

전화. 02) 523-8760~7 goodlaw@goodlaw.org <문의 : 홍금애 실장 / 윤소라 부장>

4. 제20대 국회 대정부질문 주요 현황 분석

(1) 제20대 국회 대정부질문 총괄

① 제20대 국회 동안 대정부질문을 한 10개 집회 32일간의 본회의 현황을 살펴보면 1차년도는 박근혜 정부로 4회 집회(정기회 1회, 임시회 3회)를 하였고, 국회의원의 본회의 출석률은 94.13%로 가장 높았고, 산회시 재석률 역시 31.87%로 가장 양호했다. 본회의 시간 57시간 25분으로 가장 많았다.

2017년 봄 대선 이후인 2차년도에는 대정부 질문을 위한 집회수는 2회를 줄어 들었고, 출석률은 91.83%, 산회시 재석률은 26.28%로 낮아졌다. 이어서 계속 저조한 재석률을 보였다.

《역대 국회 대정부 질문 집회 및 본회의 일수, 질문 의원수 현황》

구분	임기	집회횟수	일수	질문의원수	대통령
제16대국회	2000.5.30 ~ 2004.5.29	17	65	545	김대중/ 노무현
제17대국회	2004.5.30 ~ 2008.5.29	15	56	582	노무현
제18대국회	2008.5.30 ~ 2012.5.29	13	55	704	이명박
제19대국회	2012.5.30. ~2016.5.29	15	52	600	이명박/박근혜
제20대국회	2016.5.30. ~2019.12.31	10	32	396	박근혜/문재인

《대정부질문 본회의 출석률, 산회시 재석률, 본회의시간》

구분	본회의 출석률	산회시 재석률	본회의 시간
1차년도	94.13%	31.87%	57:25:00
2차년도	91.83%	26.28%	40:50:00
3차년도	89.41%	25.97%	39:31:00
4차년도	92.70%	21.97%	35:47:00

《집회별 대정부질문 의제 및 질문의원수 현황》

집회	회기	일수	의제	질문의원수
제343회국회 (임시회)	2016. 6. 7.~ 7. 6.	2	경제,정치·외교·통일·안보·교육·사회·문화	25
제346회국회 (정기회)	2016. 9. 1.~12. 9.	4	정치,외교통일안보,경제,교육사회문화	50
제347회국회 (임시회)	2016. 12. 12.~12. 31.	2	경제,정치·외교통일안보·교육사회문화	25
제349회국회 (임시회)	2017. 2. 1.~ 3. 2.	2	경제,정치·외교·통일·안보·교육·사회·문화	24

집회	회기	일수	의제	질문의원수
제354회국회 (정기회)	2017. 9. 1. ~ 12. 9.	4	정치,외교·통일·안보,경제,교육·사회·문화	49
제356회국회 (임시회)	2018. 1. 30. ~ 2. 28.	3	정치·외교·통일·안보,경제,교육·사회·문화	38
제364회국회 (정기회)	2018. 9. 1. ~ 12. 9.	4	정치,외교·통일·안보,경제,교육·사회·문화	50
제367회국회 (임시회)	2019. 3. 7.~ 4. 5.	4	정치,외교·통일·안보,경제,교육·사회·문화	50
제369회국회 (임시회)	2019. 6. 20.~7. 19.	3	정치·외교·통일·안보,경제,교육·사회·문화	37
제371회 정기회	2019.9.1.~12.10	4	정치·외교·통일·안보,경제,교육·사회·문화	48
10회		32	0	396

② **현역 의원의 4년간 대정부질문 횟수**를 살펴 본 바, 7회가 가장 많았고, 이언주 의원이었다. 5회 대정부질문을 한 의원은 3선인 윤상현 의원 등 5명이었다. 4선의 주호영 의원과 송영길 의원은 4회 대정부질문을 하였다.

반면, 4년 동안 한 번도 못한 의원은 88명이었다. 1회 한 의원은 101명이었다.

《현역 의원의 제20대 국회 대정부질문 횟수 현황》

대정부질의 횟수	7	5	4	3	2	1	0	계
의원수	1	5	14	23	61	101	88	203

* 295명 현역 의원중 정은혜, 허윤정 의원 제외

③ **대정부질문 우수의원 --- 《국정감사NGO모니터단 평가기준의거. 다선, 가나다순》**

노웅래 의원은 3선의원이면서 제20대 국회에서 모두 3차례나 대정부질문에 등단하였으며, 제354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무총리에게 국무위원 임명제청권 행사 등 책임총리 역할에 대해 날카롭게 질문하고, 체크 앤드 밸런스 역할을 강조해 호평을 받았고, 정치권력이 편집권, 저작권 관여하고 PD, 기자 탄압하는 게 언론 탄압이 아니냐며 언론보도 자유의 중요성을 제시했다.

윤상현 의원은 3선 의원으로 제20대 국회에 모두 5차례나 대정부질문에 등단하였으며, 외교통일분야 전문가 답게, 일문일답으로 제371회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에서 대미관계에서 트럼프행정부의 대북정책을 조명하고,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 국무위원을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김삼화 의원은 바른미래당 비례대표로서 총 3회에 걸쳐 대정부질문에 등단하여 전문성을 살려서 정책 대정부질문을 하는데 앞장 섰다. 제364회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에서 국정평가에서 가장 낮은 평가를 받고 있는 교육문제의 원인을 점검하고, 포퓰리즘 교육정책의 위험성을 질타하였다.

김종석 의원은 자유한국당 비례대표로서 총 3회에 걸쳐 대정부질문에 등단하여 경제분야 전문성을 살려서 국무위원을 압도하는 질문을 많이 하였다. 제369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저소득층이나 비숙련근로자의 일자리가 없어진 이유를 집중 추궁하고 시종 압도하는 대정부질문을 하였다.

박성중 의원은 20대 국회 중 3회 대정부질문에 등단하였으며,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 질의를 하였고, 제369회 교육, 사회, 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제로페이 사업의 난맥상을 지적하면서, 정부 주도의 간편결제 서비스가 성공한 외국 사례가 있는지 추궁하고, 과방위 소속 위원답게 언론방송사의 문제 등에 대해서 국민의 알권리를 확보하는 데 기여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성일종 의원은 제20대 국회 중 3회 대정부질문에 등단하였으며, 매 질문마다 일문일답으로 긴장감있게 질문하고, 제367회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에서 환경부장관을 상대로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의 난맥상을 조명하고, 중국발 미세먼지와 북한발 미세먼지에 대한 과학적 대응을 주문하는 등 호평을 받았다.

제윤경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로서, 제20대국회에서 총 3회에 걸쳐 대정부질문에 등단하여 전문성을 발휘하였다. 제369회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에서 현정부 들어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원인과 대책, 특히 대부업 문제를 심도있게 조명하고,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행사에 있어서 강압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채무자 보호제도 등 금융소외자에 대한 정책질문을 하여 호평을 받았다.

추경호 의원은 자유한국당 경제통으로서 대정부질문에서 날카로운 질문으로 돋보였는데, 제354회 정기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건전재정과 균형재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정부의 포퓰리즘 복지공약 실행과 증세 문제의 난맥상을 지적하고, 소득분배의 악화 문제를 점검하였다.

(2) 제20대 국회 1차년도 대정부질문 분석

대정부질문이 연례행사나 형식적인 행사처럼 되어 버렸고, 제20대 국회 제1차년도 중 대통령 탄핵, 북한의 5차 핵실험, 미사일 발사 등 국가위기상황 속에서도 감정싸움으로 2차례나 파행을 하였다.

① 대정부질문은 초재선 의원들의 몫(77%가 초·재선)

대정부질문을 하는 의원들의 국회의원 당선횟수를 보면, 초선 의원이 53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재선의원이 24명이었다. 초재선 의원이 전체 대정부질문 의원의 77%를 차지하였다. 한편, 5선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이 유일하였다.

〈당선횟수별 제20대 국회 1차년도 대정부질문의원 분석〉

구분	초선	재선	3선	4선	5선이상	계
의원수	53	24	13	9	1	100
비율	53%	24%	13%	9%	1%	100%

4선 의원의 대정부질문 횟수를 분석해 보면,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회 대정부질문을 하였으며, 송영길 의원이 2회 대정부질문을 하였다.

국민의 당 김동철, 송영길 의원을 비롯하여 7명의 의원이 각 1회씩 대정부질문을 하였다.

이중 김동철 의원은 ‘대전시민모욕 발언’ 으로 파행을 일으켰으며, 송영길 의원은 ‘기름장어’ 논란을 야기하기도 하였다.

《제20대 국회 1차년도 4선 의원의 대정부질문현황》

의원명	당선횟수	선거구		정당	성별	대정부질문 횟수
김진표	4선	경기도	수원시무	더불어민주당	남	3
송영길	4선	인천광역시	계양구을	더불어민주당	남	2
김동철	4선	광주광역시	광산구갑	국민의당	남	1
김부겸	4선	대구광역시	수성구갑	더불어민주당	남	1
변재일	4선	충청북도	청주시청원구	더불어민주당	남	1
안민석	4선	경기도	오산시	더불어민주당	남	1

의원명	당선헌수	선거구		정당	성별	대정부질문 횟수
정동영	4선	전라북도	전주시병	국민의당	남	1
정우택	4선	충청북도	청주시상당구	자유한국당	남	1
조배숙	4선	전라북도	익산시을	국민의당	여	1

② 1차년도에 대정부질문을 1차례도 못한 의원이 199명

4차례 국회에서 4회 질문 의원 1명, 3회 질문의원 2명, 2회 질문 의원 17명, 1회 질문의원 80명 등 100명의 의원이 질문하였다.

정기국회와 임시국회 4회 모두 대정부 질문을 한 의원은 국민의 당 이언주 의원으로, 343회 임시국회, 제346회 정기국회, 제347회 임시국회, 제349회 임시국회에서 모두 경제분야 질문을 하였으며,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으로 질문을 하였다.

3회 대정부질문을 한 의원은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다. 김진표 의원은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2차례 하였고, 제346회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을 하였다. 홍익표 의원 역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2차례 하였고, 제346회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하였다.

1차년도에 1차례도 하지 않은 의원은 전체 299명 의원 중 199명으로 전체의원의 2/3에 달했다.

〈질문횟수별 제20대 국회 1차년도 대정부질문의원 분석〉

구분	4회	3회	2회	1회	0회	계
의원수	1	2	17	80	199	299

③ 출석도장만 찍고 자리뜨기 여전

출석률 94.13% vs. 산회시재석률 31.87% (팅빈 본회의장)

대정부질문시 본회의 출석 국회의원은 평균 282.3명 정도로 의원의 출석률은 94.13%이었다. 출석률만 따지면 비교적 양호한 편이었으나, 아침 시작시간의 재석률은 49.03%(국회법의 개정으로 347회 임시국회부터는 오전에 상임위원회 회의를 할 수 있도록

오후 2시 이후에 개의를 하였음) 오후 속개시간 재석률은 31.3%, 저녁 산회시간의 재석률은 31.87%였다.

2월 임시국회(349회)에 산회 시에는 전체의원 300명중 겨우 32명만이 자리를 지켜서 10명중 1명에 불과했다.

실제로 본회의에 재석하여 동료의원의 질문과 국무위원의 답변을 듣는 의원은 평균적으로 3명 중 1명도 안되었다.

④ 저녁 산회시간에는 평균 95.6명만 자리지켜, 2/3의 국회의원 자리 떠

대정부질문 회의시간에는 평균 재석률이 50%이 되지 않았다. 아침 회의시작 시간에 출석한 국회의원은 147명 정도로 49.03%였으며, 점심식사 후 오후 속개시 출석한 의원은 93.80명에 불과하였고, 대정부질문이 마무리되는 산회시에는 95.6명만이 자리를 지키는 악순환이 10번 대정부질문 내내 계속되었다.

산회시에 평균이 올라 간 것은 제346회 정기국회 8차 본회의가 열린 9월 23일 당일 국무위원(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해임건의안 처리여부를 놓고 여야간의 치열한 대립으로 국무위원들을 필리버스터를 하여 자정을 넘겨 자동산회하였고, 이날 여야의원들은 표결처리를 위한 비상대기로 재석률이 비교적 높았기 때문이다.

⑤ 제20대 국회 1차년도 대정부질문 실망스러웠던 다섯 장면

(당적은 논란 당시 당적임)

1) 김동철의원 (국민의당)의 “대전시민은 저런 사람을” 발언 (2016. 7.5.)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이 질문 도중 의원석에서 이장우 의원이 발언을 하자, “어떻게 대전 시민은 저런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뽑아 댔나” 라고 하였고, “다음 총선에서 대전시민은 저런 사람 좀 제발 뽑지 말아주세요” 라고 발언을 하여, 당시 새누리당 의원들로부터 항의와 사과요구를 받고 대정부질문을 다 끝내지 못하고 정회하였다가 오후에 다시 질문을 하였다.

2) 송영길 의원(더불어 민주당)의 “기름장어처럼” (2016. 9. 22.)

더불어민주당 중진 의원인 송영길 의원은 ‘K스포츠재단, 미르재단’ 스캔들과 관련해

하루만에 법인 설립 허가가 이루어진 경위를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질의하다가 원하는 답변이 나오지 않자,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총리! 그렇게 살살 기름장어처럼 발언하면 안됩니다” 라고 하였다. 국무총리가 “살살 기름장어처럼 말씀드리는게 아닙니다” 고 반박하자, “이게 기름장어 아닙니까! 무슨 기름장어” 라고 하여 의원석으로부터 ‘정책 질의를 하세요’ 라는 항의를 받기도 하였다.

3) 정진석 의원(새누리당)의 식사시간 발언(2016. 9. 23)

2016. 9. 23. 여야간의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와 관련하여 여야간의 대립이 심해서 오후에 개의를 하였다.

대정부 질문 내내 여야간의 신경전이 있었고, 정부위원들의 필리버스트 논란까지 있었는데, 13명 중 10번째 질의 순서인 경북 경주출신 김석기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순서가 되자,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의원석에서 “의장님, 지금 국무위원들 식사를 못 하고 있어요. 의장님은 밖에 나가 식사하고 오시고” 하며, “아니, 식사도 한 시간은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걸 이런 전례가 없습니다.” 라고 이의제기를 하였다.

이때로부터 밤 8시 27분경 식사를 위한 정회가 이루어질 때까지 여야간에서는 의원석에서 소란 스런 ‘30분간만 식사시간을 달라’ 는 식사시간논쟁이 벌어졌다.

4) 하태경 의원(새누리당)의 ‘촛불에 타죽고 싶습니까?’ 발언(12월 21일)

하태경 의원(새누리당)은 정치, 외교, 안보, 교육, 사회, 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청와대 직원들의 소위 최순실 게이트 진상조사 청문회에 조직적 불출석과 관련하여 국무총리에게 질의를 하였다.

그러나 원하는 답변이 나오지 않자 “이 자리에서 황교안 총리가 명백히 답변하지 않으면 황교안 총리가 그 배후에 있다고 의심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적어도 또다시 최순실에게 부역한다는 그런 비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촛불에 타죽고 싶습니까?” 라고 하였다. 이에 황교안 국무총리는 “함부로 말씀하지 마십시오.” 라고 응수하였고, 의원석에서는 ‘하태경 말조심해’ 라는 항의도 받았다.

5) 추혜선 의원(정의당)의 질의후 답변듣기 거부(2017. 2.10.)

추혜선 의원(정의당)은 정치, 외교, 통일, 안보, 교육, 사회, 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의 마지막 질문의원으로 “이제는 더 나아가 대통령 코스프레를 하며 대선 출마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제대로 된 권한대행입니까?” 라고 하면서, “황교안 총리는 거짓말쟁이입니다. 황 총리의 거짓말, 제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고, 황교안 총리가 다섯가지 질문에 대해 답변을 하겠다고 하면서 “질문하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거짓말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면서 답변을 하자 “들어가셔도 됩니다” 라고 하다가 의원석에서 ‘질의를 하였으면 답변을 들어야지’ 하는 빈축을 듣기도 하였다. (참고로 질문의원은 15분, 14분 등 시간 제한이 있지만, 답변시간은 아무리 길어도 질문시간에 포함되지 않음)

(2) 제20대 국회 제2차년도 대정부질문 분석

① 총 2회 국회에서 실시, 금감원장 임명논란으로 4월 국회에는 무산

2017년 9월 11일 헌법재판소장(김이수) 임명동의안 부결 후 진행된 첫 대정부질문에서 자유한국당의 정기국회 보이콧을 하다가 정상화되어 이로 인해 자유한국당 대정부질문의원들이 국회법 제122조의 2(국회법 제122조의 2 (대정부질문) ⑦ 대정부질문을 하려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를 적은 질문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48시간 전까지 질문요지서가 정부에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에 따라 질의서를 사전에 제출하도록 하는 국회법 규정을 지키지 않았으면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수석원내대표의 문제제기(오늘 오전 11시 넘어서 결국은 국회의장께 명단이 제출됐습니다. 말 그대로 절차를, 규정을 위반하고 아무렇게나 나갔다가 때가 되면 마음대로 들어와도 된다는 것이 대한민국 국회라는 말입니까?)로 첫질의자였던 박범계 의원의 질문부터 한때 소란하였으나, 마무리되고 진행되었다.

국회법 개정²⁾에 따라 대정부질문을 위한 개의시간은 오후 2시여서 2시부터 초저녁인 6시 전후하여 대정부질문이 바치는 패턴이 정착되었다.

2) 국회법 제76조의2(회기 전체 의사일정의 작성기준)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제76조제2항의 회기 전체 의사일정을 작성한다.

1. 본회의 개의일시: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2. 제122조의2에 따른 정부에 대한 질문을 위한 본회의 개의일시: 개의일 오후 2시

[본조신설 2016.12.16.]

4월 임시국회에서 대정부질문을 하려고 하였으나,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임명논란과 관련한 여야의 대립각으로 무산되어 354회 정기국회와 제356회 2월 임시국회에서만 대정부질문을 하였다.

대정부질문을 위한 개회시 참석률은 평균 37.212%로 10명의 의원중 4명만 자리를 하고 있었고, 대정부질문이 끝날 무렵의 재석률은 평균 26.28%로 10명중 3명도 자리에 앉아 있지 않았다. 다만 본회의 출석률은 평균 91.83%로 출석도장만 찍고 본회의장에는 앉아 있지 않았음을 보여 주었다.

문재인정부 첫해(20-2) 대정부질문은 7회로 정기국회에서 4회 의제별 대정부질문을 하였고, 2018년 2월 임시국회에서 3회 대정부 질문을 실시하였다.

대정부 질문 시간은 많게는 4시간 43분하였고, 적게는 3시간 32분동안 실시하였다. 대정부질문 전에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실시된 경우는 3회가 있었는데 정의당 2회, 바른정당 1회였다.

질문횟수를 보면 2회 질문을 한 의원은 박완수 의원, 박용진 의원, 윤후덕 의원, 이연주 의원, 이장우 의원, 표창원 의원이었다.

② 대정부질문은 초재선 의원들의 몫(74%) 여전

대정부질문을 하는 의원들의 국회의원 당선횟수를 보면, 초선 의원이 36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재선의원이 24명이었다. 초재선 의원이 전체 대정부질문 의원의 74.07%를 차지하였다.

6선의원은 질문 당시 바른정당이었던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이 유일하였고, 5선의원은 이종걸 더불어 민주당 의원과 이주영 자유한국당 의원이었다. 1차년도에는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이 5선으로 유일하게 참여하였는데, 2차년도에는 5선 이상이 3명으로 늘었다.

《문재인 정부 첫해(20-2), 대정부질문 질문의원 통계》

당선횟수	초선	재선	3선	4선	5선	6선	계
의원수(명)	36	24	14	4	2	1	81

③ 대정부질문 도중 끼어들기 등 장내소란도 여전

먼저 2017년 9월 11일 첫날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사드배치 반대시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밤이면 밤마다 사드의 전자파는 싫어”, 그러면 밤이면 밤마

다 김정은의 수소폭탄은 좋아요?” 라고 하여 여당의원들이 야유하면서 소란이 일어났다.

9월 12일 첫 질문자였던 이주영 의원이 송영무 국방부장관에게 지난 8월 30일 한미국방장관회담시 상황을 얘기해보라고 하자, 국방부장관이 “확장억제전력을 확실히 확보하는 차원에서, 북의 위협이 증가되기 때문에 국방부장관으로서 확장억제전력을 확실히 담보하기 위해서 ‘한국의 언론과 야당에서 이러이러한 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이런 준비를 하고,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이런 것, 이런 것, 이런 것이다. 할 수 있겠느냐?’ 하니까……” 라고 답변을 하자 방청석에서 ‘대답을 똑바로 하세요’ 라고 하여 장내가 소란하였다.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부결이후 청와대에서 비난하는 논평을 낸 것에 대한 유감을 표하면서 “아무리 기대가 컸어도 앞으로 청와대논평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 민주국가, 나라다운나라에서 이런 논평내서 되겠습니까?” 라고 하자, 더불어민주당에서 ‘사과하세요’ 라고 하여 소란하였다.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이 외무부장관에게 “외교부장관님. 뭐 하얀 머리 멋있습니다.” 라고 하자, 여성비하, 성희롱 발언이라며 사과발언을 요구하여 한때 소란하였다.

9월 13일 홍영표 의원이 해외자원개발문제를 지적하면서 “산업부나 관계기관에서는 자원가격이 상승하면 회수할 수 있는데 감사원에서 이런 것을 알면서도 처벌못했다. 최경환 당시장관과 석유공사사장에 대해서도 검찰이 면죄부를 줬다”고 발언하자, “국정조사하고 감사원감사 다 했잖아요. 노무현 정부때부터 본격조사한거예요,그게” 라면서 장내가 소란하였다.

이채익 의원이 “이제 좀 문제인 정부는, 이낙연 총리는 좀 더 겸손한, 남의 얘기를 좀 듣는 그런 정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 하자, 장내가 소란하였다.

9월 14일 이우현의원이 방송장악문건이 나왔다면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하고요. 방통위원장도 이런 데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공정한 방송 하세요. 예?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공정한 방송을 원하는 거지요.” 라고 하자, 사과하세요 하면서 야당 의원들이 옹호하였다.

2018년 2월 5일에는 정진석 의원이 “북한에 1000만달러 남북정상회담진행비로 썼다는 것 이것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이라고 질문을 하자 장내가 소란하여졌다. 이언주 의원이 조명균 통일부장관에게 “북한의 열병식관련 하여 질의하면서, ” 장

관님, 대한민국 장관입니까, 북한 대변인이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자, ‘어떻게 그런식으로 질문을 하세요, 국회에서’ ‘북한 가서 질문하세요, 그런 질문은’ 을 하면서 장래에서 끼어들기가 나와 소란하였다.

최인호 의원이 “아까 모 의원께서도 통일부장관 보고 극언에 가까운 질의를했습니다. 조금전에 안상수의원께서도 국무총리를 향해서 ‘북한의 대변인같다’도대체 대한민국의 국회에서 어떻게 이렇게 무식한 색깔공세를 할 수 있습니까? 제발 좀 자중해 주세요!” 라고 하자, ‘대정부질문이나해!’ 라고 하면서 소란하였다.

전희경 의원이 “이렇게 가르치게 되면 대한민국 교과서라고 할 수 없습니다 북한 교과서 수입해다가 가르치면 됩니다. 반드시 지키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자, 방청석에서 ‘전희경의원, 질문을 좀 품격있게 하세요. 그게 뭐예요!’ 라는 항의가 나왔다.

민경욱 의원이 “아니, 자유의사로 탈북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인데 송환해 달라, 그러면 송환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까?” 라고 하자 이낙연 총리가 “그것은 아직까지.....” 라고 하자, 방청석에서 「그게 무슨 말이에요?」하면서 소란해졌다.

2018년 2월 7일에도 권성동 의원이 질문을 하자, 박범계 의원이 ‘법사위원장님 본인인사권을 놓으세요’ 라고 하였고, 김학용 의원이 ‘민주당에서 권성동 능가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 봐’ 라면서 목소리가 높아졌다.

④ 대정부질문 중 출석도장만 찍고 자리뜨기도 여전

출석률 91.83% vs. 산회시재석률 26.28% (탕빈 본회의장)

대정부질문시 본회의 출석 국회의원은 평균 274명 정도로 의원의 출석률은 91.83%이었다. 출석률만 따지면 비교적 양호한 편이었으나, 아침 시작시간의 재석률은 37.21%(국회법의 개정으로 347회 임시국회부터는 오전에 상임위원회 회의를 할 수 있도록 오후 2시 이후에 개의를 하였음) 저녁 산회시간의 재석률은 26.28%였다.

(3) 제20대 국회 3차년도 대정부질문 분석

① 총괄 :

1) 제20대국회 3차년도 국회 대정부질문은 제364회 정기국회와 제367회 임시회에 한차례씩 두차례 실시하였다.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심재철 의원 재정정보원 비인가 출입관련 고발전과 유은혜 교육부 장관 인사청문 관련하여 대정부질문 진행이 매끄럽지 못하였고, 3월 임시국회에서는 윤소하 정의당 대표의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제1야당 비판) 관계로 진행이 원활하지 못하였다.

2) 대정부질문의 형식적 특징은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은 오전에 개의하여 오후까지 진행하였으나, 제367회부터는 오후에 개의하여 저녁 무렵까지 회의진행이 되었으며, 총 대정부질문시간은 39시간 31분에 불과했다.

3) 대정부질문 중 끼워들기 방해 횟수는 총 23회로 끼워들거나 음성거림 등 장내 소란이 있었고, 대표적으로 2018. 10. 4.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 중 주광덕 의원이 질문할 때와 이철규 의원이 질문을 할 때,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나서서 발언을 하였고, 이날 장내소란 등 회의진행이 원활하지 못하였다.

4) 대정부질문은 주로 국무총리에 대한 질문이 국무총리에게 집중되어 전체 답변횟수 3,688회 중 국무총리의 답변횟수가 2,142회로 전체의 58.08%에 달해 책임부처 장관보다는 국무총리에게 질문을 하는 경향이 농후했으며, 제367회 임시국회에서는 전체의 64.88%를 국무총리가 답변했고, 출석 국무위원이나 정무위원 중 답변을 못받은 국무위원(정부위원 포함)이 7명이나 되었다.

5) 대정부질문 중 질문시간이 초과된 경우는 100명 질문의원(중복의원 포함) 중에서 56명(질문의원의 56%)는 질문시간의 부족으로 마이크가 커진 상태에서 발언을 하였다.

② 대정부질문은 초재선 의원들의 몫(75%가 초·재선) 여전

대정부질문을 하는 의원들의 국회의원 당선횟수를 보면, 초선 의원이 45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재선의원이 24명이었다. 초재선 의원이 전체 대정부질문의원의 75%를 차지하였다. 한편, 5선 의원이상 의원은 4명이었는데, 6선 의원인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이 대정부질문에 참여하였으며, 5선인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도 대정부질문에

참여하였다.

〈당선횟수별 제20대 국회 3차년도 대정부질문의원 분석〉

구분	초선	재선	3선	4선	5선이상	계
의원수	45	24	12	7	4	92
비율	48.91%	26.09%	13.04%	7.61%	4.35%	100.00%

4선 의원의 대정부질문을 살펴 보면,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과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2회 대정부질문을 하였으며, **박영선** 의원 등 9명의 의원이 각 1회씩 대정부질문을 하였다.

《제20대 국회 3차년도 4선 의원이상 의원의 대정부질문현황》

의원명	당선횟수	정당	선거구		질문횟수
유기준	4선	자유한국당	부산광역시	서구동구	2
주호영	4선	자유한국당	대구광역시	수성구를	2
김무성	6선	자유한국당	부산광역시	중구영도구	1
김재경	4선	자유한국당	경상남도	진주시을	1
박병석	5선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	서구갑	1
박영선	4선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	구로구를	1
박지원	4선	민주평화당	전라남도	목포시	1
송영길	4선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	계양구를	1
심재철	5선	자유한국당	경기도	안양시동안구를	1
이석현	6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안양시동안구갑	1
최재성	4선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	송파구를	1

③ 3차년도에 대정부질문을 하지 못한 의원이 205명

2차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2회 질문 의원 8명, 1회 질문의원 84명 등 92명의 의원이 질문하였다.

정기국회와 임시국회 1회 모두 대정부 질문을 한 의원은 8명으로, 김삼화 의원과 추혜선 의원 등 여성 의원 2명과 박성중 의원 등 6명의 남성의원들이었다.

〈질문횟수별 제20대 국회 3차년도 대정부질문의원 분석〉

구분	2회	1회	0회	계
의원수	8	84	205	297

《2회 대정부질문을 한 의원》

의원명	당선횟수	정당	선거구		성별	질문횟수
김삼화	초선	바른미래당	비례대표	비례대표	여	2
박성중	초선	자유한국당	서울특별시	서초구을	남	2
백승주	초선	자유한국당	경상북도	구미시갑	남	2
성일종	초선	자유한국당	충청남도	서산시태안군	남	2
유기준	4선	자유한국당	부산광역시	서구동구	남	2
이태규	초선	바른미래당	비례대표	비례대표	남	2
주호영	4선	자유한국당	대구광역시	수성구을	남	2
추혜선	초선	정의당	비례대표	비례대표	여	2

④ 출석도장만 찍고 자리뜨기 여전

출석률 89.41% vs. 산회시재석률 25.97% (팅빈 본회의장)

대정부질문시 본회의 출석 국회의원은 평균 267명 정도로 의원의 출석률은 89.41%(1차년도 94.13%)이었다. 출석률만 따지면 다른 의안과 비슷하였지만, 아침 시작시간의 재석률은 44.81%(국회법의 개정으로 367회 임시국회부터는 오후 2시 이후에 개의를 하였음) 오후 속개시간 재석률은 27.84%, 저녁 산회시간의 재석률은 25.97%였다. 실제로 본회의에 재석하여 동료의원의 질문과 국무위원의 답변을 듣는 의원은 평균적으로 3명 중 1명도 안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⑤ 끼워들기, 장내 소란 등 부끄러운 행태 여전

대정부질문의 형식적 특징은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은 오전에 개의하여 오후까지 진행하였으나, 제367회 부터는 오후에 개의하여 저녁 무렵까지 회의진행이 되었다. 대정부질문중 끼워들기 방해 횟수는 총 23회로 끼워들거나 웅성거림 등 장내 소란이 있었고, 대표적으로 2018. 10. 4.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 중 주광덕 의원이 질문할 때와 이철규 의원이 질문을 할 때,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나서서 발언을 하였고, 이날 장내소란 등 회의진행이 원활하지 못하였다.

○홍영표 의원 발언대 옆에서 — 부의장님, 대정부질문을 하는데 발언 내용을…… 솔직히 의장님이 이거는 좀 제지를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정부질의 중에 이런 게 어디 있어요?」 하는 의원 있음)
 (「정책질의를 하셔야지요, 뭘니까?」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윤재옥 의원 발언대 옆에서 — 부의장님, 질의한 게 뭐가 잘못된 겁니까, 잘못이 전혀 없는데? 무슨 질의 도중에 원내대표가 나와 가지고……)
 (「질문답게 합시다!」 하는 의원 있음)
 (「국회의원으로서 창피하지 않게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⑥ 제20대 국회 3차년도 대정부질문 답변자 분석

1) 청와대(대통령) 관련 답변자가 필요

국무총리의 답변을 보면, ‘아는 바가 없다. 취지를 전해 드리겠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정도의 답변을 하는데, 청와대 비서실장도 대정부질문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헌법 제62조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정부위원에 대한 출석 요구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외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당연히 출석케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헌법기관에 대해서는 권력분립 등의 충돌이 있어 부를 수 없지만, 대통령 보좌진을 불러서 질문을 하는 것은 헌법위반으로 보이지 않고 당연히 국민의 대표로서 부를 수 있다고 본다.

2) 책임장관이라고 하지만 아직 미흡, 답변의 58.08%는 국무총리에 쏠려

대정부질문 기관 중 보면 질문의 내용이 다양한데, 모두 국무총리에게 집중되어 전체 답변횟수 3,688회 중 국무총리의 답변횟수가 2,142회로 전체의 58.08%에 달해 장관에게 질의를 하여야 하는데, 국무총리에게 질의를 하는 경향이 농후했다. 책임총리로서의 역할이 강조되는 것이기는 하나, 책임장관제의 취지에 맞지 않다.

3) 특정분야 홀대 문제 : 여성, 해양수산 분야 장관 답변 ‘0’ 건

대정부질문은 4개분야에서 3일 또는 4일 동안 진행되지만, 제20대 국회 제3차년도에 있었던 두차례의 대정부질문에서 진선미 여성가족부장관이나 김영춘 해양수산부장관에 대한 질문은 단 한번도 없어 답변이 ‘0’ 건이었다. 이외에도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제367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차례의 질문도 받지 못했다. 같은날 최종구 금융위원장 역시 한차례도 받지 못하였는데, 경제정책에 있어서 금융정책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의외적인 결과이다.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정부위원 포함) 답변횟수 현황》

분야	회기 차수 (날자)	직위	성명	답변 횟수	분야	회기 차수 (날자)	직위	성명	답변 횟수
정치에 관한 질문	제367회 제5차 (2019년3월 19일)	국무총리	이낙연	331	정치에 관한 질문	제364회제 5차(2018 년9월13일)	국무총리	이낙연	354
		통일부장관	조명균	2			통일부장관	조명균	4
		법무부장관	박상기	39			법무부장관	박상기	31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13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17
							법무부차관	김오수	7
외교·통일 · 안 보 에 관한 질문	제6차 (2019년3월 20일)	국무총리	이낙연	295	외교통일· 안보에 관한 질문	제 7 차 (2018년10 월1일)	국무총리	이낙연	250
		외교부장관	강경화	95			외교부장관	강경화	55
		통일부장관	조명균	51			통일부장관	조명균	116
		국방부장관	정경두	75			국방부장관	정경두	83
							산업통상자원부장 관	성윤모	신임인 사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신임인 사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	신임인 사
							국방부차관	서주석	27
경제에 관한 질문	제7차 (2019년3월 21일)	국무총리	이낙연	251	경제에 관한 질문	제8차 (2018년10 월2일)	국무총리	이낙연	198
		부총리겸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139			부총리겸기획재정 부장관	김동연	20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영민	0			과학기술정보통신 부장관	유영민	5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3			농림축산식품부장 관	이개호	8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14			산업통상자원부장 관	성윤모	19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4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34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0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0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5			중소벤처기업부장 관	홍종학	4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16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7
		금융위원장	최종구	0			금융위원장	최종구	13
교육·사회· 문화에 관 한 질문	제8차 (2019년3월 22일)	국무총리	이낙연	198	교육·사회· 문화에 관한 질문	제9차 (2018년10 월4일)	국무총리	이낙연	265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31			부총리겸교육부장 관	유은혜	177
		법무부장관	박상기	66			법무부장관	박상기	50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15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26

분야	회기 차수 (날자)	직위	성명	답변 횟수	분야	회기 차수 (날자)	직위	성명	답변 횟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0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20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14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18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0			환경부장관	김은경	17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	0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19
		방송통신위원장	이효성	0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	0
							행정안전부장관	심보균	0
							방송통신위원장	이효성	2

(4) 제20대 국회 4차년도 대정부질문 분석

대정부 질문이 연례행사나 형식적인 행사처럼 되어 버렸고, 제20대 국회 제4차년도에는 지소미아와 관련 일본의 무역보복, 북한 선박의 삼척항 입항, 추경과 관련 질의와 조국 장관 임명과정에서 문제 그리고, 제371회 첫 대정부질문과정에서 나온 장관집 압수수색과정에서의 검사와의 통화가 언론의 조명을 받았다.

① 대정부질문은 초재선 의원들의 몫(75.29%가 초·재선)

대정부질문을 하는 의원들의 국회의원 당선횟수를 보면, 초선 의원이 47명으로 가장 많았고(미주 대사로 의원직을 사퇴한 이수혁 의원 포함), 다음으로 재선의원이 17명이었다.

초재선 의원이 전체 대정부질문 의원의 75.29%를 차지하였다. 한편, 5선 의원은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심재철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 등 4명이었다.

3선의 박지원 의원은 369회 정치분야 등 질문에 나섰는데, 천정배 의원이 부친상을 당하여 대타로 나왔다고 하면서 전기세 인상이 없는 지 등에 대해 질문을 하였다. 천정배 의원이 질문을 하였다면 5선 이상은 5명이었을 것이다.

〈당선횟수별 제20대 국회 4차년도 대정부질문의원 분석〉

구분	초선	재선	3선	4선	5선이상	계
의원수	47	17	11	6	4	85
비율	55.29%	20.00%	12.94%	7.06%	4.71%	100.00%

② 4차년도에 대정부질문을 1차례도 못한 의원이 210명

제371회 정기회와 제369회 임시회 등 2차례 국회에서 2회 질문한 의원은 7명이

었고, 나머지는 1번씩 질문을 하였다. 아직 제20대 국회가 마무리 되지 않았지만, 210명은 4차년도에서 한번도 질의를 하지 않았다.

《제20대 국회 4차년도 2회 이상 대정부질문을 한 국회 의원》

의원	당선회수	선거구		소속정당
곽상도	초선	대구광역시	중구남구	자유한국당
박명재	재선	경상북도	포항시남구울릉군	자유한국당
윤상현	3선	인천광역시	남구을	자유한국당
이동섭	초선	비례대표	비례대표	바른미래당
이용주	초선	전라남도	여수시갑	무소속
이태규	초선	비례대표	비례대표	바른미래당
주호영	4선	대구광역시	수성구을	자유한국당

〈질문횟수별 제20대 국회 1차년도 대정부질문의원 분석〉

구분	2회	1회	0회	계
의원수	7	78	210	295

③ 출석도장만 찍고 자리뜨기 여전

출석률 92.70% vs. 산회시재석률 21.97% (팅빈 본회의장)

제4차년도 대정부질문시 본회의 출석 국회의원은 평균 275.57명 정도로 의원의 출석률은 92.70%이었다.

다만, 7월 임시국회(369회)에 2차 본회의 산회 시에는 전체의원 298명중 겨우 37명만이 자리를 지켜서 재석률이 12. 42로 저조하였다.

실제로 본회의에 재석하여 동료의원의 질문과 국무위원의 답변을 듣는 의원은 평균적으로 3명 중 1명도 안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20대국회 4차년도 대정부질문 본회의 현황》

집회	본회의 차수 (일자)	의제	개의 시간	산회 시간	출석 의원	재적 의원	출석률	산회시 재석의원	산회시 재석률
제369회 임시회	제6차(2019년07월 09일)	정차외교· 통일안보	14:13	19:19	270	298	90.6	57	19.13%
	제7차(2019년07월 10일)	경제	14:04	19:27	268	298	89.93	37	12.42%
	제8차(2019년07월 11일)	교육사회· 문화	14:03	18:20	272	297	91.58	85	28.62%

집회	본회의 차수 (일자)	의제	개의 시간	산회 시간	출석 의원	재적 의원	출석률	산회시 재석의원	산회시 재석률
제371회 정기회	제2차(2019년09월 26일)	정치	14:04	19:19	280	297	94.28	103	34.68%
	제3차(2019년09월 27일)	외교·통일· 안보	14:04	19:02	265	297	89.23	40	13.47%
	제4차(2019년09월 30일)	경제	13:49	19:43	289	297	97.31	67	22.56%
	제5차(2019년10월 01일)	교육·사회 ·문화	14:04	18:58	285	297	95.96	68	22.90%
평균					275.57		92.70 %		21.97%

④ 제4차년도 대정부 질문 이슈는 조국 법무부장관, 소위 기승전 조국

5선의 원혜영 의원은 제371회 첫주자로 나서서 마무리 발언을 통해 “역대 최악의 국회로 평가받던 제18대 국회가 그 마지막에 이르러 극적으로 국회선진화법을 탄생시켰던 것처럼 우리 20대 국회 역시 자랑스러운 개혁국회의 이름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라고 하였지만, 가깝게는 조국 장관과관련해 여야간 대정부 질문시에도 장내소란이 벌어졌고, 이후 제20대 국회 제4차년도는 패스트트랙 법안(선거법, 공수처법) 처리로 인해 여야간의 갈등이 고조되었다.

제369회 임시회 대정부 질문에서는 정부의 가짜 뉴스대책에 대한 공과문제가 조명되었고, 북한선박의 삼척항 입항과 관련하여 허위 발표 문제가 대두되었다. 지소미아와 관련된 일본의 대한 경제 보복 문제도 크게 다루어졌다.

제371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정부 질문을 하면서 정회가 있었다. 주광덕 의원이 질문을 할 때, 조국 법무부장관이 검사와 통화를 한 사실이 밝혀져서 자유한국당에서 의원총회를 하였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 박상도 의원은 법무부장관을 부르지 않고 ‘법무부 관계자’라고 불러서 회자가 되었으며, 제5차 본회의 회의시에 주호영 의원이 조국 법무부장관에게 검사와의 통화에 대해 집중 추궁을 하였는데, 이때 더불어 민주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구갑)이 “장관으로 인정도 안하면서 무슨 질의인가?” 라고 하여 소란이 일기도 하였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주영 국회부의장이 사회를 보면서 여야 교섭단체 대표의 협의 없이 회의 중에 정회를 일방적으로 하였다고 하여 대정부질문 본회의 중에 계속 사과를 요구하기도 하였다.